

# 근현대 농경시대 민속품 'K-컬처' 물꼬 트나

## 비움박물관 'K-무지업 지역순회전 지원사업' 선정

### '한반도의 평화-워낭소리' 주제로 서울 등서 특별 순회전 민속품 3만여 점·설치작품... '문화유산 콘텐츠' 확장 기대

광주 유일 사설 박물관이 근현대 농경시대 민속품을 통해 'K-컬처 한류' 물꼬를 틀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는 특별 순회전시를 마련한다. 4일 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박물관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26 K-무지업 지역순회전 지원사업'에 선정돼 '한반도의 평화-워낭소리'라는 주제로 특별 순회전시를 서울과 광주에서 잇따라 갖는다. 비움박물관 개관 10주년(2016년 3월 17일)을 기념해 마련된 광주·서울 순회전인 이번 전시는 한국 근현대 농경시대 민속품과 현대 설치예술품을 결합해 사라져가는 전통 속에 담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동시에 한국의 마지막 농경시대 민속품이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평화와 공존의 울림을 전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비움박물관이 선정돼 열게 된 '2026 K-무지업 지역순회전 지원사업'은 지역 박물관·미술관의 우수한 전시 콘텐츠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 문화자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추진하는 대표적 지원사업으로 이해하면 된다. 비움박물관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에 축적된 문화유산 콘텐츠를 수도권까지 확장해 선보이게 된 가운데 광주와 서울을 잇는 문화예술 교류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로 부족함이 없

보이는 한편, 지역에서 발굴·보존해 온 농경문화의 가치와 평화의 메시지를 보다 폭넓은 관객들과 공유해 지역 문화의 전국적 확산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전시기간 동안 관람과 도슨트,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평소 전시 등 문화생활에 소외된 분들의 방문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나무 향 가득한 전시 공간에서 친근한 워낭소리와 함께 옛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그리움에 빠져들 수 있다.

이번 전시의 핵심 소재는 농경사회에서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 존재인 소의 목에 달아 사용했던 '워낭'이다. '워낭'은 낫쇠로 제작돼 소의 목에 매달았으며, 의양간에 해로운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의 의미와 함께 액막이의 상징으로 사용됐다. 농부들은 워낭 소리에 생명의 보호와 풍요,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비움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박물관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26 K-무지업 지역순회전 지원사업'에 선정돼 '한반도의 평화-워낭소리'라는 주제로 특별 순회전시를 서울과 광주에서 잇따라 갖는다. 사진은 워낭과 관련 민속품.



이영화 관장

전시는 이번 워낭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확장.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새롭게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전시는 과거 농경시대의 역마의 소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가 필요로 하는 평화의 메시지로 다시 울려 퍼지도록 하는 바람을 담아내고 있다. 여기서 이번 순회전은 민속품과 현대예술의 만남의 자리로 손색이 없다. 전시에서는 비움박물관 소장 민속품 가운데 워낭을 비롯한 219점

의 유물을 바탕으로 근근호씨 등 광주 지역 설치 예술가와 공예가들이 제작한 49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가들은 전통 민속품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 조형언어로 재해석해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과거의 유물을 박제된 역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 있는 문화 자산이라는 점을 살펴한다. 이외에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목표로 한 이번 순회전은 세대를 잇는 공감과 소통의 장을 포함한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지나온 삶과 부모 세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는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농경문화가 낳은 젊은 세대에게는 현대예술 속에 담긴 우리 민속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수 있다. 서울 전시에서는 비움박물관 소장 민속품 100여 점과 지역예술가 설치작품 49점을, 광주 전시에서는 비움박물관 소장 민속품 3만여 점과 지역 예술가 설치작품 50점을 각각 만날 수 있다. 서울 전시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종로구 인사동 소재 경인미술관, 광주 전시는 7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광주시 동구 재봉로 소재 전남여고 맞은 편 비움박물관에서 진행된다. 문의 062-222-6668.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현충일 희경루에서 만나는 망종의 풍류

### 광주문화재단 6일 '무등풍류연 in 희경루' 4회차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6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희경루 일대에서 '2026 무등풍류연 in 희경루' 4회차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에 맞춰 전통예술과 절기 문화를 통해 삶과 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4회차 행사의 주제는 '망종(芒種), 청단풍: 여름을 여는 바람'이다. 망종은 보리를 가두고 모를 심는 시기로 본격적인 여름을 여는 절기다. 거두는 손, 심는 손, 여름을 여는 바람이라는 이미지로 절기의 의미를 풀어내며 시민들이 전통문화와 세시 풍속을 이야기·소리·행렬·공연·체험으로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 희경루 누각에서는 국악동화구연 '호랑이 뱃속 잔치'가 펼쳐진다. 해학적인 전래동화와 국악 장단을 결합한 이 공연은 '무등산 호랑이' 캐릭터를 활용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참여자의 흥미를 이끌어낸다.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무등산 호랑이와 플라로이드 기념사진 촬영 기회도 주어진다. 참여 규모는 50가족이다.

오후 4시부터는 취타대 행렬이 희경루 누각에서 잔디마당까지 이어진다. 총장문화사업단과 함께 진행되며, 사전 모집된 어린이 기수 체험단과 무등산 호랑이 캐릭터가 함께 행렬에 참여한다.

오후 4시 10분부터 5시까지는 마당공연 '무등산 호랑이가 들려주는 망종(芒種) 이야기'가 희경루 잔디마당에서 펼쳐진다. 재담꾼과 무등산 호랑이 캐릭터가 망종의 의미를 관객과 주고받는 참여형 공연이다. 공연과 함께 호랑이 노래가 풍경 만들기

체험이 이뤄진다. 액운을 막고 복을 불러온다는 호랑이와 맑은소리로 복을 부르는 풍경을 매개로 가정에 평안을 기원하는 망종 기념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번 행사의 특별 프로그램은 광주시 무형유산 악기장 이춘봉 보유자와 함께하는 커스터마이징 단소 제작 체험이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희경루 잔디마당에서 운영되며, 참여자의 입소 모양에 맞춰 단소 취구를 직접 제작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단소'를 만드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참여자는 사전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20명을 선정한다.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까지는 '절기골든벨'이 열린다. 희경루 잔디마당에서 유생복을 입고 망종(芒種) 절기에 관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초등학생 이하 3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최고 득점자에게는 경품이 증정된다.

이 밖에도 삼행시 백일장, 민속놀이 체험, 희경루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해설 투어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부대행사로 운영된다.

배동환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현충일에 열리는 이번 행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전통문화가 지닌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희경루에서 망종 절기와 광주 무형유산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7세 이하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gtcc.or.kr) 및 인스타그램(@gtcc\_gtc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2026 무등풍류연 in 희경루' 1회차 정월대보름 행사 진행 모습.

## 비올라 음색으로 채우는 여가 '오티움 콘서트II'

### 광주시향 오늘 예술의전당 소극장... 비올리스트 신경식 협연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은 바쁜 일상 속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여가를 선물하는 기획공연 오티움 콘서트II "Viola"를 5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광주시향의 오티움 콘서트는 악기를 주제로 한 공연 시리즈로, 각 회차마다 플루트·오보에·기타 등 솔로 악기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6월 콘서트 시리즈의 두 번째 주인공은 '비올라'다. 이번 공연은 풍성한 프로그램과 해설을 통해 비올라의 특징을 소개하고, 북유럽의 춤곡부터 현대 음악의 걸작, 민속음악에 담긴 작곡가들의 음악 세계와 작품의 의미까지 폭넓게 들여다본다.

공연은 에드바르 그리그의 페르균티 중 '프렐류드'로 시작한다. 노르웨이 전통 춤곡 '할링'은 박동감 넘치는 리듬이 축제의 활기를 더하고, 이어지는



국제 콩쿠르 우승 등 세계를 놀라게 한 차세대 거장이다.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견고한 음악성을 인정받은 지휘자 최정우는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를 거쳐 BMI 국제 지휘 콩쿠르 수상자로 이름을 알렸다.

광주시향 오티움 콘서트 II "Viola"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예스24에서 예약할 수 있다. 초등학생, 7세 이상 관람. 입장료는 S석 2만원, A석 1만원.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파리 씨떼 레지던시' 입주 작가

### (재)광주비엔날레, 정유승 선정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 이사 윤범모)은 광주 지역 현대미술 작가의 해외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 '2026 파리 씨떼 레지던시 입주작가 공모'를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했고, 정유승작가(사진)를 5월 27일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작가는 오는 10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프랑스 파리 씨떼 레지던시 스튜디오 1실에 머물며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입주작가 선정은 공모일 기준 5년 이상 활동한 광주 기반의 미술 작가 중에서 씨떼 레지던시 입주 이력이 없고,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면서 프랑스 비자 발급에 걸려서유가 없는 자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내 주요 미술기관 소속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최종 1명을 선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광주비엔날레와 가나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1명을 선정해 해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만큼 정 작가는 체류 기간 동안 주거와 창작이 가능한 스튜디오 1실(20~60㎡)이 제공된다. 레지던시 내의 관화 공간, 도예 공장, 전시실, 공연장 등 다양한 공동 작업 공간 및 부속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 작가는 지역에 기반해 단단한 연구 성과를 기후위기와 젠더 노동이라는 글로벌 주제로 확장하고자 하는 명확한 예술적 비전과 시의성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성들의 삶에 주목하고 그들이 남긴 흔적을 시각 매체로 기록, 재구성한 아카이브 작업을 해왔다. 이번 가운데 여성 작가로서 살아온 경험과 시선을 바탕으로, 제도권 중심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작업을 이어왔다. 대표작으로는 광주지역 성매매 집결지의 낮과 밤을 다룬 영상 '집결지의 낮과 밤' 및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연대를 외쳤던 황금동 여성들을 조망한 '황금동의 여성들', 전남방직·일신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신체와 노동 흔적을 추적한 '고단한 작업 계획', 도시 외곽 영농 지역 여성 농민들의 생애를 다룬 '호미장' 등이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판소리·가락으로 즐기는 전통문화관의 토요일

### 이튿 번째 토요일상설공연 내일 서석당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6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이튿 번째 '토요일상설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야금산조와 판소리를 통해 전통음악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공연은 가야금 연주자 김보람의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로 문을 연다. 연주를 맡은 김보람은 제21회 임방울국악제 금상, 제23회 감해전국가금강연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이어 고수 황정현의 북 반주에 맞춰 소리꾼 조수황의 만정제 '춘향가'가 울려 퍼진다. 해설을 곁들여 판소리를 처음 접하는 관객이 이해하기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소리꾼 조수황은 2016년 동아국악콩쿠르 판소리 일반부 금상 수상, 2022년 대한민국 남도민요



김보람

조수황

경향대회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며 젊은 소리꾼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이수자로 활동 중이다.

공연에 앞서 오후 2시 30분부터는 오픈 리허설 '소리 맛보기'가 마련된다. 오후 1시부터는 토·토·전!(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